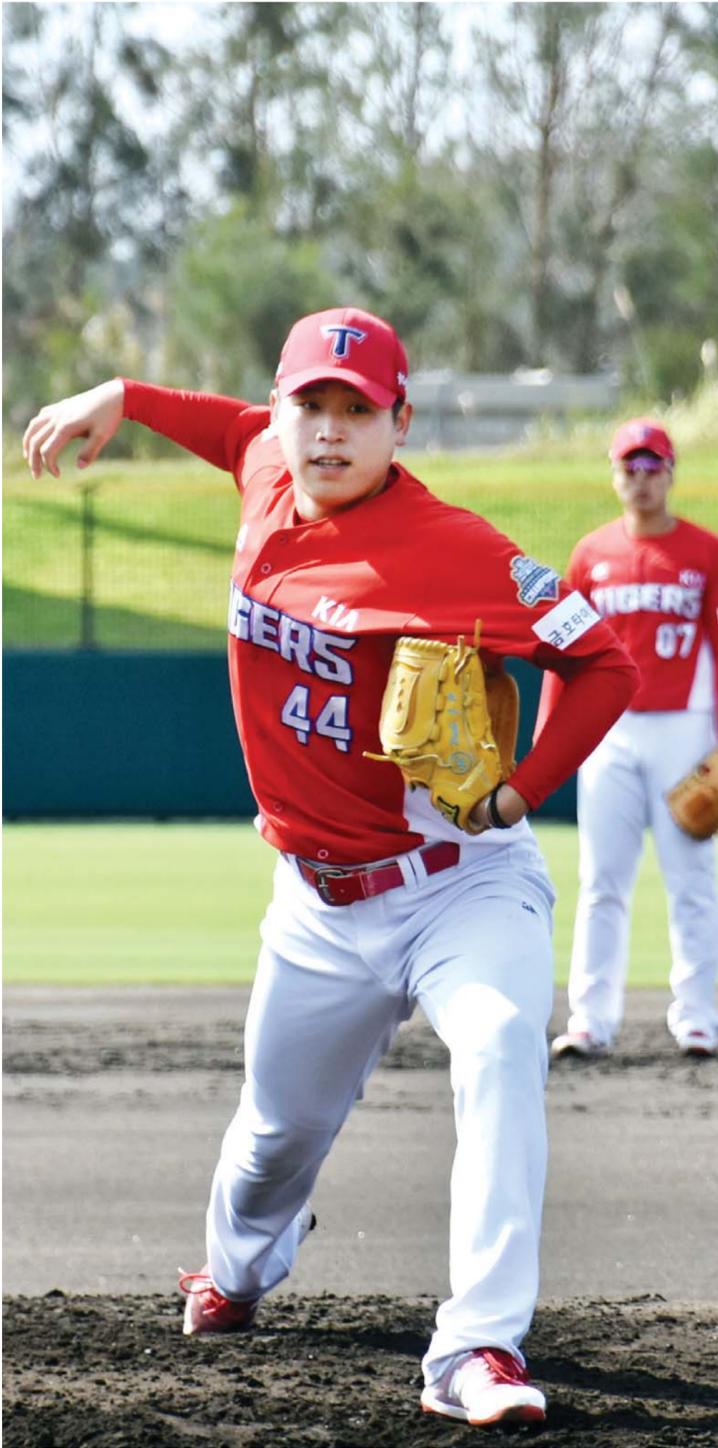


박준표 체인지업 완성... 마운드 경쟁 불 붙였다



‘퓨처스 리그 2관왕’ 박준표가 KIA 타이거즈 마운드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준표(사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 마무리캠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다.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했던 박준표는 올 시즌 2.37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을 수확하면서 퓨처스리그 ‘2관왕’에 등극했다. 지난 10월 10일 제대를 한 박준표는 긴박한 순위 싸움 상황이 전개되면서 바로 1군에 풀입, 13일 롯데와의 홈경기를 통해 KIA 복귀전도 치렀다. 마무리캠프에서도 박준표의 올 시즌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박준표는 지난 18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 등판해 실전을 소화했다. 2이닝을 던진 박준표는 1개의 안타를 내줬지만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좋았다. 24개의 공으로 6개의 아웃카운트

올 시즌 2.37 평균자책점·12승... 퓨처스리그 2관왕 제대 후 복귀전서 눈도장... 캠프 연습경기 2이닝 무실점 선발·불펜 재편에 고민 많은 마운드 ‘천군만마’

를 잡은 박준표는 변화무쌍한 공을 던지면서, 이날 경기조에서 제외돼 관람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롯데 투수들의 감탄사를 유도하기도 했다. 특유의 커브로 KIA 불펜에서 ‘마당쇠’ 역할을 톡톡히 했던 박준표는 이번 캠프에서는 체인지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롯데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중간 점검을 한 박준표는 “생각보다 좋아져서 나도 놀랐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박준표는 “생각하고 고치려 했던 게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체인지업이랑 투구시 원팔 잡는 것에 신경을 썼다. 코치님이 글러브 올리는 것을 알려 주셨는데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체인지업도 많이 좋아졌지만 더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준표는 군복무 기간 체인지업 장착을 목표로 했다. 선발로 역할을 하면서 체인지업에 자신감을 더한 박준표는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완벽함에 도전하고 있다. 박준표는 “캠프를 잘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12월, 1월에 운동을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박준표의 복귀와 활약으로 마운드 구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올 시즌 선발 고민을 했던 KIA는 내년 시즌에도 선발 재구성을 해야 한다. 코칭스태프가 생각하는 확실한 선발은 양현종과 두 외국인 투수 등 세 명뿐이다. 마무리캠프가 아닌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초보 선발’ 한승혁도 한발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선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여기에 올 시즌 선발로 역할을 했던 ‘두 집수함’ 임창용과 임기영의 자리에도 변화가 있다. 임창용이 재계약 불발로 팀을 떠났고, 임기영도 부진으로 원정에 서게 되면서 선발 경쟁은 2019시즌의 큰 숙제가 됐다. 김윤동에게 부담이 집중된 불펜도 강화해야 하는 등 마운드 고민은 산적해 있다. 그만큼 KIA는 박준표의 상승세가 반갑다. 박준표는 경찰청 에이스로 2관왕까지 오르면서 확실하게 선발 수업을 받고 왔다. 입대 전에는 불펜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기도 했다. 박준표의 성공적인 마무리캠프가 KIA 마운드의 변화를 예고한다. /wool@kwangju.co.kr

고된 훈련 힘의 원천은 ‘룸메이트’

입단 동기·학교 선후배·군대 동료 등 구성해 서로 격려·응원 최고참 박경태조는 사랑방... 게임·이야기 꽃피우며 우애 돈독

입단 동기, 학교 선후배, 군대 동료 등 마음 맞는 룸메이트가 고된 캠프의 힘이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간 KIA 마무리캠프 선수단은 오는 27일까지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 강도 높은 훈련의 연속이지만 젊은 선수들이 주를 이룬 캠프에는 활기가 넘친다. 경기장 밖 분위기도 좋다. 선수들은 편한 동료와 한방을 구성해 야구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하면서 캠프의 고단함을 잊고 있다. 각각 상무와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 복귀한 '92 동기' 투수 박준표와 이준영은 한 방에서 회포를 풀고 있다. 지난 7일 함께 캠프에 합류한 2012년 입단동기 투수 박지훈과 이제 박

전역한 내야수 유원주도 룸메이트로 재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무에서 선·후임으로 지냈던 내야수 이창진과 황대인도 ‘실과 바늘’ 담겨 방도 같이 쓴다. 순천 효천고 선후배인 이민우와 차명진은 캠프에서도 단짝으로 보내고 있다. ‘최고참’ 박경태는 황인준과 함께하고 있다. 두 사람의 방은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찾는 ‘사랑방’이기도 하다. 황인준이 게임기와 게임 CD를 챙겨 오면서 후배들이 부지런히 발길을 하고 있다. 투수 문경찬과 박정수의 방은 모바일 게임을 즐겨하는 이들로 북적거리는 곳이다. 선수들은 편을 나눠서 경기장 밖 대결을 하는 등 요즘 세대답게 모바일 게임을 하며 휴일을 보내기도 한다.

캠프 주장인 외야수 이인행은 내야수 최정민과 룸메이트다. 두 사람은 쉬는 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스타일. 휴식날, 말 그대로 쉬면서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은종과 전은석은 휴식날을 침대에서 보낸다. 조용히 방에 누워있으면서 영상을 보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취미. 박준태도 ‘방콕파’라서 룸메이트였던 류승현은 쉬는 날 친구 신범수, 최원준과 함께 하곤 했다. 백미카엘과 한방을 쓰는 홍건희도 휴식파다. 포수 신범수는 투수 김우신과 ‘배터리 룸메이트’로 보내고 있고, 내야수 최원준은 후배 오정환과 룸메이트다. 이밖에 67kg의 캠프 최경량 신재왕은 90kg가 넘는 포수 한준수와 한방을 쓰고 있고, 유인상과 박정우, 고영창과 한준영, 한승택과 황은호가 각각 룸메이트를 구성해 이번 캠프의 ‘특별한 동료’로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영원한 숙적’ 우즈-미켈슨 1천만 달러 맞장

24일 ‘캐피털 원스 더 매치’... 우즈, 역대 18승4무15패 우위

타이거 우즈(43)와 필 미켈슨(48·이상 미국)의 일대일 매치 플레이 맞대결이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4일 펼쳐진다.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우즈와 미켈슨의 맞대결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골프 코스에서 열리며 미국 금융회사 캐피털 원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공식 명칭이 ‘캐피털 원스 더 매치 : 타이거 vs 필’로 정해졌다. 총상금 900만 달러(약 101억원)가 걸려 있는데 승자가 900만 달러를 다 가져가고, 패한 선수는 빈손으로 돌아서는 ‘승자 독식’ 경기다. 우즈와 미켈슨은 골프에서 대표적인 라이벌 관계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부문에서 우즈가 1억1550만 달러로 1위, 미켈슨이 8825만 달러로 2위다. 또 현역 선수 중에서 메이저 최다승 1, 2위가 우즈(14승)와 미켈슨(5승), PGA 투어 대회 최다승 1, 2위도 우즈(80승)와 미켈슨(43승)이다. 한참 젊은 나이였을 때는 실제로도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4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된 최근에는 둘 사이에 바짝 섰던 날카로움이 무뎠다. 올해 4월 마스터스에서 둘이 함께 연습 라운드를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우즈와 미켈슨이 함께 연습한 것은 1998년 LA 오픈 이후 20년만”이라고 대서특필했을 정도였다. 둘은 올해 우승 갈증을 푼 점도 닮았다. 미켈슨은 올해 3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우즈는 9월 투어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두 선수 모두 2013년 이후 5년여 만에 거둔 승리였다. 역시 관심은 두 선수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두 선수가 동반 라운드를 했을 때 승패는 우즈가 18승 4무 15패로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 또 9월 투어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전성기 기량을 회복했다는 평을 듣는 우즈가 이번 대결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승패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베테랑이 이뤘고 있다. 외국 스포츠 베테랑업체의 베테랑 항목을 보면 우즈가 자신의 클럽을 몇 번 휘두를 것인가, 스리 퍼트를 할 것인가, 3번 홀까지 누가 앞서나갈 것인가, 셔츠 색깔은 무슨 색깔이 등으로 다양하다.



오는 24일(한국시간) 일대일 매치 플레이 대결을 앞둔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필 미켈슨이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주 서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1번 홀부터 20만 달러 내기가 성사됐다. 미켈슨이 “이 홀에서 나는 버디를 할 것”이라며 10만 달러를 걸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즈가 제안을 받아들이며 10만 달러로 화답했다. 대회장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VIP 손님들만 초청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시청료 19.99달러를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방송에서 중계한다. /연합뉴스

류현진 “제구력으로 승부하겠다”

내년 시즌 구상... “새 구종 익힐 생각 없어”

류현진(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선발 투수로 꾸준히 활약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변화구 습득 능력이 다. 평범한 선수라면 1년 넘게 걸릴 구종 추가가 류현진에게는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빅리그 진출 이후 밖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무기를 하나씩 공개했던 류현진은 20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더는 새로운 구종을 익힐 생각이 없다”면서 “제구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류현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공인 체인지업은 2006년 한화 이글스 입단 직후 팀 선배인 구대성에게 배웠다. 이를 앞세워 KBO리그를 평정한 그는 2013년 빅리그에 진출해서도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활용했다. 그러나 2014년 체인지업이 간파당하자 류현진은 커브와 슬라이더를 다듬었다. 커브는 팀 동료였던 조시 베크, 고수 슬라이더는 클레이턴 커쇼에게 조금씩 요령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커쇼로부터 배운 고수 슬라이더는 2014시즌을 버티게 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 2015년 어깨 수술, 2016년 팔꿈치 수술로 힘겨

운 시간을 보낸 류현진은 2017년 컷 패스트볼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돌파구를 찾았다. 포심 패스트볼 비중을 줄이고, 부상 우려 때문에 고수 슬라이더를 봉인한 그는 스트라이크 존 앞에서 살짝 꺾이는 컷 패스트볼로 타자의 범타를 유도했다. 류현진이 컷 패스트볼을 익히게 된 계기도 흥미롭다. 사이영상상을 받은 댈러스 카이클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던져보기 시작했고, 릭 히니컷 투수코치의 조언을 얻은 덕분에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18시즌에는 투심 패스트볼까지 조금씩 던지기 시작하면서 류현진을 상대하는 타자는 오지선 다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처럼 메이저리그에서도 신무기를 척척 장착했던 류현진이 2019시즌 새로운 구종을 추가할 계획을 잡지 않은 배경은 나쁘지 않았던 성적 때문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정규시즌 1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로 타자를 압도했다. 현재 보유한 무기만으로 빅리그 타자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연합뉴스